권두언

2023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한국인권학회와 인권법학회가 공동으로 발행하는 인권 전문 학술지 <인권연구> 제6권 제2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열악한 조건 속에서 두 학회가 뜻을 모아 인권 전문 학술지를 매년 2회 발행하는 기본 취지는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의 의의를 공유하고 곳곳에 산재해 있는 인권의 위협요소에 대한 정보와 담론을 공유하며 그 해결책과 대안을 모색하는 학술적 공론장을 활성화하여 인권 보호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번 호도 학술지의 기본 취지에 맞게 인권관련 학술적·실천적 논의를 치열하게 반영한 일반논문 8편, 현장논단 5편, 그리고 인권관련 서평 2편 등으로 나름 풍성하게 꾸밀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인권은 보편적 가치라는 점에서 단순히 국내적 차원에서만 그 보호와 증진을 완결할 수 없고 세계화로 국경을 넘은 교류가 일상화된 현실은 인권 보장의 국제화를 더욱 가속화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권의 보편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그 보장체계는 국가별 법체계와 사회문화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구축될 수 없습니다. 결국 인권보장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법원리와 법제의 발전은 인권보장체계의 필수요소이며, Margin of Appreciation 독트린은 그 대표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제지역적 차원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의 전범으로 발전해온 유럽인권재판소에서 이 독트린을 형성하고 적용하는 사례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유럽인권재판소 Margin of Appreciation 독트린에 대한 비판적 고찰: 소수자 인권 보장과 지역인권재판소의 역할을 중심으로”는 인권 보장의 국제화의 핵심쟁점을 검토하여 인권보장에 대한 기본인식을 심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세계화를 통해 국경의 경계를 넘어 인권 보장의 필요성과 배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계기는 노동력의 국제적 이동입니다. 노동의

www.kci.go.kr

세계화는 노동 인권의 국제화와 국제 인권의 국내화라는 병행적 과제를 인권 보장의 영역에서 제기하게 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난민을 노동 세계화의 틀 속에서 인식하고 난민보호와 노동보호라는 이중적 인권 보장의 과제를 결합시키는 노동경로(labor pathway)의 사례를 분석하고 있는 “보충적 난민 수용경로(complementary pathways)와 난민보호: 캐나다의 노동경로와 TBB 모델을 중심으로”가 우리의 제한된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독자들은 이 글을 통해 이른바 ‘보충적 난민 수용경로’가 다양한 이주경로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난민보호의 양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주노동자의 주거 인권 문제를 소재로 한 “이주노동자 주거 문제의 인권적 접근: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또한 이주노동 전문가 및 통역상담원과의 개별·집단면접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이주노동자 주거 문제는 관련 법·제도적 개선을 넘어 그 문제의 원인인 “구조적 전환을 위한 제도적 전제 조건의 개선”이 요구된다는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 결론에 터잡은 구체적 정책적 제안은 ‘이주노동자 주거 권리꾸러미’를 원칙으로 한 “이주노동자 기숙사 제공 의무화”입니다. 이 시의적절한 실증연구를 통해 시대착오적인 주거 인권 침탈의 슬픈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인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의 세계화는 사실 노동력 자체의 이동이 아니라 다국적기업의 확산을 통한 자본의 이동이라는 형태로도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다국적 기업의 노동 인권 보장 책임이 현시대 새로운 인권 보장의 주요영역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과 인권 맥락에서 ‘책임있는 사업철수(Responsible Exit)’ 논의의 전개와 발전방향”은 최근 미얀마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책임있는 사업철수’ 원칙을 국제인권 보장체계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 보장체제에서 기업과 인권의 현안이

www.kci.go.kr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사업의 '중단' 혹은 '철수' 맥락에서의 논의는 드물었던 현실에서 매우 시의성이 높은 시론적 연구성과입니다.

인권의 국제적 차원과 더불어 인권 보장과 증진이라는 과제가 가진 공간적 복합성을 보여주는 영역이 인권의 지방적 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권 발전의 현실적 공간이어야 할 지방을 배경으로 한 특별한 인권보장체계의 구축이나 인권담론의 형성은 인권이론과 실무의 주요한 현안이기도 합니다.

"지방정부 인권정책의 권리조건에 관한 고찰: 136개 지방정부 인권기본조례를 중심으로"는 136개 지방정부의 인권조례의 현황 및 특징과 조례제정 과정에서 지방의회 차원의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지방정부 인권정책의 권리조건으로 작용한 조건들을 탐색합니다. 인권이 다층적·복합적으로 실현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권리조건-권리주장-권리효과'로 이어지는 '인권의 순환'이라는 차원에서 통합적 방식으로 인권문제를 포섭하고 이 큰 틀 속에서 지방정부 인권정책을 위치시킴으로써 인권도시의 안정적 구현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의의가 크게 다가옵니다.

또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차별을 넘어": 광주지역 성소수자 인권 운동의 5·18정신 퀴어링하기"는 오월정신이라는 지방적 특수성을 내재한 시대정신과 소수자 담론의 구조적 연계성을 드러냄으로써 지방 차원의 인권 보장 담론의 새로운 차원과 방향성을 열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인권은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공간을 지탱하는 기본 가치입니다. 그 결과 우리 일상의 모든 공간과 상황은 인권 침해의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교육의 공간 또한 전통적으로 교육-피교육이라는 특수관계에 고유한 인권침해의 장입니다. 동시에 그러한 본연적 계서구조나 문화에 기생하는 종속적 상황과 관계가 초래하는 인권침해의 위험 또한 적지 않습니다. "대학생들의 학내 인권침해 피해 및 인권상황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설적 설명모델의 검증"은 대학 및 대학생이라는 조직과 지위 상황이 갖는 특성들을 중심으로 학생

www.kci.go.kr

들의 자기 인권 보호수준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들을 분석하여 대학생의 학내인권 문제의 현황을 탐색하는 소중한 기초연구로 향후 관련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후속연구를 자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호의 현장 논단 또한 다양한 영역에서 특색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무대를 열어 주고 있어 의미가 깊습니다. 인권 침해의 사각지대에 있는 당사자의 목소리에서부터 인권 보장과 증진의 체제에 기여하는 활동들에 대한 보고들, 미래의 인권보호활동의 동량들이 겪는 고민이 인권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현안과 과제에 대한 감수성을 일깨워줍니다.

두 편의 서평도 인권 발전의 소중한 발자취를 기억하고 추앙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서 서평자분들에게 깊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서평에서 이끌어 주신대로 인권법 연구의 소중한 기초자료가 될 「국제인권규약 주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박영사, 2024)나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기업의 인권 보장 책임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인권경영, 세상을 바꾸는 패러다임」(이상수, 태학사, 2022)의 의의를 환기하고 싶습니다.

언제나 그러하듯이 인권발전을 위한 전문 학술지의 발간은 많은 분들의 열과 성이 어우러진 협력과 봉사의 결정체입니다. 우리나라 인권 연구의 지평을 열어 오셨고 다시 한번 인권 연구의 든든한 보루로서의 책무를 위해 지치지 않고 앞장서주시는 한국인권학회 조효제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과 인권법 연구를 통한 인권 발전에 변함없이 뜻을 모아주고 있는 인권법학회 운영위원님들과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솔선수범의 자세로 알차게 제6권 제2호를 준비하여 주신 이주영 편집위원장님을 비롯한 편집위원님들과 실무를 맡아주신 두 학회의 담당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12월

인권법학회장 **김 종 철**

www.kci.go.kr